

가족 및 아동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교과목 개발 및 운영*

Course Development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or Family and Child Studies*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조교수 양 성 은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geun Y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결론 |
| II.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 개발 | 참고문헌 |

<Abstract>

Family and child educator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ir students understand, conceptually and pragmatically, the major research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qualitative methodology course for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family and child studies. Three stages of course development were followed; investigating how methodology courses are offered in family and child studies, discussing what topics and components should be covered in a qualitative methodology course, and planning how the topics and components should be taught. The proposed qualitative methodology course includes; understanding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frameworks, learning the general process of a qualitative research, comparing different qualitative traditions of inquiry, discussing emerging issues related to qualitative research, and conducting experimental field work. This study can provide an academic syllabus for family and child educators, who are interested in teaching a qualitative methodology course for graduate students.

주제어(Key Words) :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교과목 개발(course development)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Yang,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South Korea
Tel: +82-32-860-8117 Fax: +82-32-865-5228 E-mail: syang@inha.ac.kr

* 이 논문은 2007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INHA-36117-01)

I. 서론

1. 아동 및 가족분야 질적연구의 증가

연구는 철학적 패러다임(paradigm)에 따라서 실증주의(positivism)에 입각한 양적연구와 해석주의(interpretivism)에 입각한 질적연구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종교개혁 이후 근대과학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Comte를 위시한 실증주의자들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데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성태제, 1998). 그러나 이후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구별되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닌다는 자각과 함께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인간이 부여한 주관적 의미를 추구하고 현상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강조하는 해석주의가 한편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아동관련 학회지에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질적연구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연구 예: 남현숙, 1992; 심현애, 이소희, 1997; 이주옥, 1994; 천희영, 1997). 특히 유혜령(1997)은 “질적 아동연구를 위한 해석학의 방법론적 시사”를 발표하면서 아동학 분야에서 질적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동학 분야의 질적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전개되는데, 아동의 놀이에 관한 탐색(이경순, 최석란, 2004), 첫 아버지됨의 경험에 관한 이해(김혜선, 2005), 위탁아동의 갈등에 관한 분석(김진숙, 2006), 장애아 통합학급 유아의 인식 변화(강희연, 2006) 등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가족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가 하나의 유행처럼 양적으로 증가(천혜정, 2004, p. 162)”하면서 가족연구의 경향도 변화를 보였다. 이와 함께 가족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을 고찰한 논문들도 등장하는데, 가족수술사 연구법(이기숙, 1998), 비판이론적 질적연구법(서수경, 2001), 일상성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법(양성은, 2006)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국내 아동 및 가족분야에서 질적연구의 역사는 양적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질적연구방법론 자체에 대한 비판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아동 및 가족분야의 질적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의 한편에는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출발은 대학교(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론 수업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의 핵심은 적절한 연구문제를 선정하고, 적합한 대상으로부터 타당한 정보를 획득하며, 정확한 자료분석과 신뢰할만한 결과 해석방법을 학습하는 연구방법론에 있기 때문이다(김병성, 1996).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4년제 대학교(원) 아동가족 유사학과의 교과과정에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및 가족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질적연구방법론 교육의 현황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4년제 대학교(원) 아동가족 유사학과의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의 개설현황을 검토하였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과정보서비스(http://cesi.kedi.re.kr/serv/P_AS_LS_XX_0001.jsp)」를 이용하여 검색어 “아동”과 “가족”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 결과 약 68개의 전국 4년제 대학교(원) 아동가족 유사학과를 검색하였다(예: 아동학과, 아동가족학과, 소비자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등).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공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시 “아동”이나 “가족”이 학과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예: 가정교육과, 생활복지학과 등).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으로 한정하였으며, 특수대학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명시할 점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과정보서비스」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새로운 사항의 보완, 수정, 변경은 각 대학교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조사 시점의 현황만을 반영하는 시기적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둘째, 선정된 각 대학교 아동가족 유사학과의 학부 및 일반대학원 교과과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자는 교과과정 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각 아동가족 유사학과의 행정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교과목에 관해 문의하였다. 그러나 약 20여개 해당 학과에 전화조사를 실시하다가 중단하였는데, 이는 해당 학과들에서 재학생이 아닌 개인연구자에게 홈페이지 공개자료 외에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과의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교과과정을 참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교과과정 개편 중이므로 앞으로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의 개설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는 답변도 반복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해당 학과의 공식 입장을 받아드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학과 공식 홈페이지에 현재 시점에서 공개된 교과과정”만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질적연구방법론이 개설된 전국 일반대학원 아동가족 유사학과 현황은 잠정적이며 제한적임을 밝힌다. 그러나 검색시 교과명 뿐만 아니라 교과개요까지 살펴봄으로써 내용적으로 질적연구방법론에 관한

수업인지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 전공에 개설된 “아동가족학 연구법2”는 “질적연구법”이라는 교과명을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 내용이 질적연구방법론을 가르치는 과목이므로 포함시켰다.

전국 4년제 대학교 및 일반대학원 아동가족 유사학과의 교과과정을 검토한 결과, 학부과정에 질적연구방법론이 개설된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부에서는 “연구법”이란 교과명으로 양적방법론을 수업하고, “통계학” 기초를 부가적으로 수강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였다. 한편,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검토한 결과 <표 1>의 대학원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표 1>의 대학교(원)에서 학부와 대학원 전공 명칭이 다른 경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재된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보면,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 논문이 증가하는 현실과 달리 질적연구방법론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국내 4년제 대학교(원) 아동가족 유사학과는 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개설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과 명칭을 “아동” 또는 “가족”에 한정시킨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만일 학과 명칭에 융통성을 가지고 유사학과의 범위를 확대했다면 더 많은 대학교(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질적연구방법론이 정규과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다른 과목 안에서 비정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교과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로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전공에서는 “가족사회학특론”이나 “가족발달세미나” 수업에서 질적방법론을 강의하기도 하고,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성심교정) 아동가족학전공에서는 “아동학특론” 수업에서 질적방법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었지만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질적연구방법론은 아직까지 소수의 대학교(원) 아동가족 유사학과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3. 질적연구방법론 교육의 필요성

질적논문의 양적 증가와 달리 아직까지 소수의 아동가족 유사학과만이 질적연구방법론을 운영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정현숙(1999, p. 29)이 가족학 기본교과목을 제안하면서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강의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지 10여년이 되어가지만 이는 아직 요원하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Fielding, 2005). 특히 인간의 발달, 심리적 역동, 대인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전공분야에서 양적연구방법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질적연구방법론의 필수과목화를 강조하고 있다. 예로서, 미국의 교육학분야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 질적연구방법론이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성장하여 정점에 올랐다(이용숙, 김영천, 1998, p. 209). 미국의 아동가족 유사학과 일반대학원에서도 양적 및 질적연구방법론 모두를 필수과목으로 규정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표 1> 질적연구방법론이 개설된 전국 4년제 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 유사학과

| 일반대학원 학과 및 전공 | 교과목명 |
|-----------------------|-------------------------------|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계열 아동가족학과 | 질적연구방법론1 질적연구방법론2 |
| 경원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아동학과 | 질적연구방법 |
| 동덕여자대학교 일반사회계열 아동학과 | 아동학의 질적연구방법론 |
|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아동가족학과 | 가족학 질적연구법 |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계열 아동학과 | 질적연구방법 |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소비자가족학과 | 소비자가족 질적방법 |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아동학과 | 유아교육의 질적연구 아동학의 질적연구방법론 |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아동복지학과 | 질적연구방법론 질적연구실제1 질적연구실제2 |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 질적연구방법 |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 질적연구방법 |
| 인하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아동복지학전공 | 아동가족학 연구법2 |
| 호서대학교 아동학과 | 질적연구방법 |

주. 조사 시기는 2007년 2학기

Onwuegbuzie(2000)는 양적연구방법이나 질적연구방법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다른 연구방법에 대해 배타적인 연구자를 “단편적 연구자(uni-researchers)”라고 불렀다. 단편적 연구자들은 Tashakkori와 Teddlie(2003, p. 64)가 말한 “양적 및 질적방법을 함께 사용한 연구(bilingual research)”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마저 힘들어한다.

연구방법론 수업을 양적연구법 과목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대학원 학생들이 질적연구방법론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최소한 석박사 과정생이라면 양적 및 질적방법론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학위논문 주제를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보고,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이라도 이를 사용한 논문을 읽고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대학원 교육의 목표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 및 가족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이 개설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아동학은 성인 연구자의 구조화된 관찰, 양육자나 교사의 질문지, 통제된 실험 등의 자료수집을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해석주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연구자가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경험에 있어 전문가(Guell, 2007, p. 884)”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아동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예: 그림, 사진, 문화기술지적 참여관찰 등)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자유가 주어진다. 또한 가족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은 가족과정(family process)이나 가족원들의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s)을 탐색하면서 양적방법이 지닌 한계를 인식해왔다.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가족원의 가치, 신념, 의미, 권력 관계 등의 현상학적 이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 및 가족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양적연구방법론 외에 질적연구방법론의 개설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II.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 개발

아동 및 가족분야의 질적논문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질적연구방법론을 학습할 기회가 한정된다면 국내 질적연구의 “질적” 수준은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원생들이 연구방법론의 주요 패러다임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 첫째, 질적연구방법론 교육의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의 개발 준거를 설정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학습목표, 교과내용, 교재 선정, 교과주제별 학습활동을 구체화하여 강의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발 과정은 <표 2>로 도식화될 수 있다.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준거를 참고하였다. 첫째, 국내 아동가족 유사학과에서 기존에 개설한 질적연구방법론 수업계획서를 내용분석하여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강의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질적연구방법론을 개설한 아동가족 유사학과 대학원이 소수이며,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경우 강의계획서를 수강편람에 올리지 않은 곳도 있고, 해당 대학원생이 아니면 강의계획서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강의계획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직 4개 대학교 일반대학원(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계획서를 입수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둘째, 국내 아동가족 유사학과에서 개설한 질적연구방법론 강의계획서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Qualitative Methodology(<http://www.uofaweb.ualberta.ca/iiqm/>)에서 운영하는 Research Training & Seminars Program을 참고하였다. International Institute for Qualitative Methodology는 질적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다학제간 국제연구기관으로서, 학술지인 International

<표 2>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 개발 과정

| 단계 | 내용 | 방법 |
|-----|-----------------------------------|---|
| 1단계 | 질적연구방법론 교육 실시 현황 조사 | - 교육인적자원부 학과정보서비스 탐색 - 각 대학교 요람, 학과 홈페이지, 교과과정 정보 고찰 - 해당 학과 행정실로 전화 조사 |
| 2단계 |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 개발의 준거 설정 | - 현재 실시되는 국내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의 내용 분석 - 기존의 교과과정 내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현실성 반영 |
| 3단계 |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 개발: 교과내용 및 운영방안 제시 | - 구체적인 학습목표, 교과내용, 교재 선정, 교과주제별 학습활동을 구성하여 강의안 개발 |

〈표 3〉 아동 및 가족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강의 개요

| | |
|------------------|---|
| 강의 목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방법론의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해 이해한다. 2. 질적연구의 연구문제 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해석에 대한 일반적 과정과 절차를 학습한다. 3. 다양한 전통을 가진 질적연구방법을 비교하여 각각의 구체적 특성을 고찰한다. 4. 최근 질적연구방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5. 학생 Fieldwork Project를 실시함으로써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
| 대상 | <p>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한다.</p> <p>본 교과목 외에 양적연구방법론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론적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p> |
| 범 위 | <p>본 교과목이 학과에서 개설 가능한 유일한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이라는 가정 하에 포괄적 내용을 개론적으로 압축하여 구성한다.</p> <p>심화과정의 개설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 질적연구방법의 비교”를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p> |
| 강 의 진 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주 학습주제에 따른 강의. 2.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 실습. 3. 관련 논문을 비교, 분석하여 토론. 4. 학생 Fieldwork Project 실시와 발표. |
| 교 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axwell, J. A. (2005).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2nd ed.). Thousand Oaks, CA: Sag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Chapter4. Research questions: What do you want to understand? ② Chapter5. Methods: What will you actually do? ③ Chapter6. Validity: How might you be wrong? ④ Chapter7. Research proposal: Presenting and justifying a qualitative study 2. Denzin, N. K., & Lincoln, Y. S. (Eds.).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3rd ed.). Thousand Oaks, CA: Sag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Chapter6. Ethics and politics in qualitative research ⑥ Chapter8.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⑦ Chapter29. What's new visually? ⑧ Chapter34. Analyzing talk and text 3.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Chapter1. A framework for design ⑩ Chapter10. Qualitative procedures ⑪ Chapter11. Mixed methods procedures 4.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⑫ Chapter2. Philosophical, paradigm, and interpretive frameworks ⑬ Chapter4. Five qualitative approaches to inquiry ⑭ Chapter5. Five different qualitative studies 5. Morgan, 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2nd.). Thousand Oaks, CA: Sag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⑮ Chapter4. Planning and research design for focus group ⑯ Chapter5. Conducting and analyzing focus group 6.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논문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⑰ Blumenreich, M. (2004). Avoiding the pitfalls of “conventional” narrative research: Using poststructural theory to guide the creation of narratives of children with HIV. Qualitative Research, 4(1), 77-90. ⑱ Jordan, A. B. (2006). Make yourself at home: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search roles in family studies. Qualitative Research, 6(2), 169-185. ⑲ McMurray, P. (1998). Gender behaviors in an early childhood classroom through an ethnographic lens.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1(2), 271-290. ⑳ Owens, E. & Ring, G. (2007). Difficult children and difficult parents: Constructions by child care providers. Journal of Family Issues, 29(6), 827-850. |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를 출간하며 국제화회를 매 해 개최하고 있다.

셋째, 국내 아동가족 유사학과의 교과과정 특성을 고려하였다. 현실적으로 아동가족 유사학과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 관련 수업이 2개까지 개설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교과목의 특성은 개론적 성격을 지니며 질적연구방법론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만일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2개 이상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 질적연구방법의 비교(〈표 4〉 참고)”를 심화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준거를 참고로 하여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 포함되어야할 5가지 중심내용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방법의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는 일반적 과정을 학습한 후 차별적 전통을 지닌 질적연구방법들을 비교한다. 이어서 질적연구방법의 최근 쟁점들을 고찰해 보고, 실제로 소규모 질적연구를 실행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선정된 중심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시켜 개발된 강의계획은 〈표

(표 4) 아동 및 가족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강의 운영

| 주 | 강의내용 | 교재 | 관련활동 |
|----|---|------|-------------------------|
| | * 강의개요 소개 | | |
| 1 | I. 연구방법론의 철학적 패러다임 1. 실증주의(Positivist social science) | | |
| 2 | 2. 해석주의(Interpretive social science) 3. 비판주의(Critical social science) 4. 실용주의(Pragmatic social science) | ⑥⑨⑫ | |
| 3 | II. 질적연구의 일반적 과정 1. 질적연구문제의 형성 ① 질적연구문제의 본질: 무엇을 탐색할 것인가? ② 연구문제와 방법론의 적합성: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2. 연구참여자의 선정 ① 연구참여자에 대한 관점: 전문가로서의 연구참여자 ② 연구참여자 규모 | ①⑩ |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실습 |
| 4 | 3. 자료수집 방법 ① 전통적 방법: 면접, 관찰, 문서자료 등 | ② | |
| 5 | ② 새로운 방법 a. 포커스그룹, 이메일, 인터넷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한 면접 b. 검색엔진을 이용한 문서 및 기사 수집 c. Autophotography/Photovoice를 이용한 시청각자료 수집 | ⑦⑮⑯ | 포커스그룹을 이용한 면접 실습 |
| 6 | 4. 자료분석 및 해석방법 ① 전사본 분석: 수작업 vs.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 ⑧ | 전사본 분석 실습 |
| 7 | ② 문서자료 분석 ③ 시청각자료 분석 | | 질적분석 Software NVivo8 실습 |
| 8 | 중간고사 | | |
| 9 | 5. 질적연구의 검증(verification) | ③ | |
| 10 | * 학생 Fieldwork Project 연구계획서 발표 및 논의 | | |
| 11 | III. 구체적 질적연구방법의 비교 1. 근거이론적 접근(Grounded theory) 2. 현상학적 방법(Phenomenology) | ⑬ | |
| 12 | 3. 문화기술지(Ethnography) 4. 사례연구(Case study) | ⑭ | |
| 13 | 5. 상이한 질적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 | ⑰⑱⑲⑳ | 학회지 논문들 비교 고찰 및 보고서 발표 |
| 14 | IV. 질적연구방법에 관한 쟁점들 1. 연구윤리에 관한 쟁점 2. 혼합연구방법론에 관한 쟁점 3. 질적연구의 실용성에 관한 쟁점: 학위논문 작성, 학회지 논문 출간, 연구비 신청 등 | ④⑤⑪ | |
| 15 | * 학생 Fieldwork Project 결과보고 및 논의 | | |
| 16 | 기말고사 | | |

3)과 <표 4>에 도표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표 3>에 제시한 교재는 가능한 최신 개정판을 중심으로 구성하기 위해 원서를 선정하였다. 보다 적합한 국내 저서나 번역서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참고할만한 아동 및 가족 대상의 질적논문을 소개하여 대학원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표 4>는 교과목의 운영방안을 현행 4년제 대학원 16주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1. 연구방법의 철학적 패러다임

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연구방법의 근본이 되는 철학적 패러다임을 학습하는 것이다. 패러다임

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복잡한 현실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Patton, 2002, p. 69). 연구방법의 기저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에 대한 의미, 지식에 대한 정의 등을 포괄하는 철학적 이해가 없으면 연구는 지향점을 상실하게 된다. 질문지를 배포하고 통계 패키지를 돌리거나 면접을 실시하고 전사한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이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연구(research)라기 보다는 기술(technique)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란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정교화 하는 기술을 뛰어넘어 연구자의 학문적 신념, 윤리성, 결과의 파장효과까지 고려해야 되는 통합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을 다루는 학문분야에

서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연구를 기술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연구방법이 지닌 존재론(ontology), 인식론(epistemology), 가치론(axiology)에 대한 고찰의 기회를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문제, 자료수집법, 자료분석법, 결과해석 전반에 철학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아동가족 유사학과에서 개설되는 양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드물다. 이를 고려해 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는 Habermas(1972)가 구분한 인간의 세 가지 근본적 관심을 바탕으로 방법론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Habermas가 제시한 기술적 관심, 의사소통적 관심, 해방적 관심은 각각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criticism)와 연결될 수 있으며, 본 교과목에서는 최근 관심이 확대된 실용주의(pragmatism)까지 포함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각각의 철학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양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 비판적연구방법, 그리고 혼합연구방법으로 연결되는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한된 강의시간 동안 학문의 철학적 전통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철학적 패러다임의 부재가 가져오는 연구목적의 혼란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질적연구의 일반적 과정

양적연구자는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자료수집을 완료한 후 분석을 실시해 가설을 검증하는 순차적 과정을 밟는다. 반면, 다양성을 강조하는 질적연구에서는 합의된 연구절차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질적연구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론자들은 선지식(foreknowledge) 없이 현장에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선행연구 고찰을 자료분석 시점으로 미룰 것을 제안한다. 한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질적연구는 정해진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위과정 중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질적연구의 일반적 진행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는 질적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설계를 하고,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고, 연구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단계로 질적연구의 일반적 과정을 구성하여 강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 형성 단계에서는 질적연구문제

가 양적연구문제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철학적 패러다임에 일치하는 연구설계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질적연구의 연구참여자(participants)가 양적연구의 연구대상(subject)과 어떻게 다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권력, 소외된 연구대상,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강의에서는 질적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방식과 함께 최근 관심이 모아지는 새로운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 강의를 듣고, 직접 실습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끝으로, 질적연구의 검증(verification)에 관한 강의에서는 질적연구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숙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3. 구체적 질적연구방법의 비교

질적연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방법론 측면에서도 수많은 형태의 접근방식이 질적연구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질적연구의 일반적 진행과정을 학습한 학생들에게는 특정 인식론적 전통을 지닌 구체적 질적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질적연구방법 중 차별적 전통을 지니며 사용되는 대표적인 접근으로는 근거이론적 접근(grounded theory stud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연구(case study), 현상학적 방법(phenomenological study) 등을 들 수 있다. Creswell(2007)은 여기에 내러티브접근(narrative research)을 포함시켰으나 아동 및 가족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교수자는 각각의 접근이 지닌 학문적 기원, 연구초점, 자료수집, 자료분석, 서술형식의 특징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접근은 일반적 질적연구과정을 따르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지니므로, 연구주제에 따라 어떤 접근법이 보다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하도록 한다. 각각의 접근법을 사용한 논문들을 읽고 비교분석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4. 최근 대두된 질적연구방법에 관한 쟁점들

1) 연구참여자에 관한 윤리적 문제

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쟁점은 양적연구자나 질적연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라 불리는 관계나 수집된 자료의 속성상 질적연구자들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적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친밀하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는 양적연구자가 경험하지 않을 윤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심층면접에서 연구참여자에게 고통스러운 정서반

응을 야기할 수도 있고, 참여관찰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연구참여자의 비밀이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다.

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는 인간의 대상화(objectification)를 비판하는 질적연구의 특성(Padgett, 1998)을 고려하여 윤리적 쟁점을 논의할 것이다. 아동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경우에는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SRCD)에서 제시한 윤리적 기준(<http://www.srkd.org/ethicalstandards.html>)을 함께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2007년 4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연구윤리 논의가 어떻게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자료수집의 다양성

질적연구의 전통적 자료수집방법으로 심층면접, 참여관찰, 기존 문서자료 이용을 들 수 있다. 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는 기존의 자료수집방법 외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포커스그룹 면접, 이메일 면접, 인터넷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한 면접 등이다. 포커스그룹 면접은 특정 주제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연구참여자 집단을 구성하여 그룹토의를 진행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개인면접에서 도출할 수 없는 정보를 집단역동을 이용해 수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장점이 있다. 이메일 면접이나 인터넷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하는 면접은 대면접촉이 없으므로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연구참여자의 자기개방을 끌어내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처럼 심층면접이 쉽지 않은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경제적 효율성도 높다. 질적연구가 장기간 소요되는 자료수집으로 악명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본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여 질적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Autophotography(Ziller, 1990)가 예가 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가 연구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 자신의 정서, 의견, 가치관 등을 담아내는 방법이다. 언어적 제약을 뛰어넘어 연구참여자가 표현하는 풍부한 심상(image)은 흥미로운 질적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카메라가 생활의 일부가 된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자료수집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오디오 기록 장치, 고화질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의 사용은 질적자료의 수집, 보관, 검증에 용이하게 한다. 질적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매체의 발전이 미국에서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의 입지를 강화시킨 점(Fielding, 2005)을 고려할 때 시청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하겠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방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문서자료를 이용한 질적연구가 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기존 문서를 질적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보관소나 기록원을 뒤지던 시대에서 경쟁적으로 출현하는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는 검색엔진(예: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기사검색 서비스 <http://www.kinds.or.kr/>)을 통해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로 소개하고자 한다.

3) 자료분석의 다양성

질적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면접 전사본, 참여관찰한 현장노트(fieldnotes), 기존 문서기록문 등의 형태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질적연구자들은 자료를 오리고 붙이는 수작업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왔다. 이러한 수작업 과정은 질적 분석이 지루하고 고되며 심지어 “비과학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는 전통적인 분석방법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질적 자료 분석법을 대학원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질적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QDA software)의 출현은 1980년대 초반 영미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었다(Weitzman, 2000, p. 804). 현재 QDA소프트웨어는 보다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QDA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방대한 질적자료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용이하며, 개념들 간의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p. 276). 또한 QDA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질적분석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Fielding, 2005). 최근 영미권 질적연구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QDA소프트웨어로는 ATLAS.ti, MAXqda, ETHNOGRAPH, HyperResearch, NVivo 등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QDA소프트웨어는 영문 자료에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글자료를 호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 출시된 NVivo7은 한글자료를 분석하는데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2008년에 새로운 버전 NVivo8이 출시되었다.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러한 QDA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사용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혼합연구방법론에 관한 쟁점

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 혼합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제한이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론의 철학적 패러다임에서 실용주의를 소개하고 질적연구방법

에 관한 최근 쟁점에서 혼합방법연구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혼합방법연구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및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 자료수집법, 자료분석법 등을 결합 또는 통합하는 것이다(Creswell, 2003). 문제는 혼합방법연구의 기저에 있는 실용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없이 양적 및 질적자료를 마구 잡이로 수집하여 해석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발표되는 논문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혼합방법연구가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모두 사용함으로 막연히 둘의 단점을 보충하리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혼합방법연구에 대한 전문적 훈련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질적방법이든 양적방법이든 어느 한쪽의 체계를 엄격히 따르는 것이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혼합방법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선불리 유행처럼 시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학원 학생들에게 혼합방법연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질적연구의 실용성

연구의 필요성이 아무리 절실하고 설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이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게 질적연구계획서가 얼마나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양적연구의 철학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국내 아동가족 학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질적방법을 사용한 학위논문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혹은 학회지에 기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러한 질적연구의 실용성에 관한 논의가 본 교과목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위과정 중의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순수성만을 주장하며 이들이 대처해야하는 현실적 쟁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본 질적연구방법론의 교수자는 양적 및 질적연구에 관한 오해를 지적해야한다. 첫째, 양적연구계획서가 질적연구계획서에 비해 연구비를 지원받을 승산이 더 있다고 단순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이 공개하는 “연구계획서 전공심사 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연구방법이 무엇이나 보다 전체 연구의 독창성, 학문발전공헌도, 그리고 연구계획의 실천가능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유사한 양적연구계획서들이 넘치는 현실에서 오히려 독창적인 질적연구계획서로 승부하는 것이 역설적이나 가능성 있는 시도일 수도 있다.

둘째, 양적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심사에 더 쉽게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심사자가 양적연구방법에 능통한 심사자보다 소수인 것은 사실이다.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진 양적연구에 비해 질적연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평가자의 임의성이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위논문이든 학술지논문이든 “양적연구라서 통과되고 질적연구라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연구라서 통과되고 나쁜 연구라서 거부된다”는 간단한 명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좋은 연구”란 주제가 독창적이며, 철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방법론적 엄격성을 실천하고, 결과의 학문적 공헌이 높다는 공통점을 띤다. 본 질적연구방법론의 교수자는 연구의 실용성에 대한 쟁점을 다루면서 양적 및 질적연구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질적연구방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질적연구의 실행

질적연구방법론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식은 질적연구를 직접 시도하고, 연습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소규모 질적연구를 직접 계획하고, 연구참여자를 만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학생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한다. 자신의 프로젝트 계획서를 수업에서 함께 논의해 피드백을 받고, 교수자는 진행 과정을 점검한다.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할 때 교수자는 대학원생들의 자기반성(self-reflection)을 촉진하여 스스로의 경험을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질적연구를 실행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 평가하여 스스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야말로 질적연구가 강조하는 현상학적인 의미 창출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질적방법을 사용한 아동 및 가족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연구방법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자각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동가족 유사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질적연구방법론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강의계획을 제안하였다.

먼저, 질적연구방법론 개설 현황을 고찰한 결과 국내 4년제 대학교 아동가족 유사학과 학부과정에서는 질적연구방법론이 개설된 곳을 찾을 수 없었으며, “연구법” 과목에서 양적연구법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현실적으로 학부과정에서 양적연구방법론과 질적연구방법론을 구분하여 개설하는 것은 교과목 운영상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법”이란 과목명에 맞게 최소한 연구방법론의 근본을 이루는 상이

한 패러다임들에 관한 내용을 학습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야만 질적연구방법을 자료수집법인 면접이나 관찰로 동일시하는 학부생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혹은 과목명을 “양적연구방법론”으로 구체화하고 수업의 범위가 양적연구방법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양적연구방법만이 유일한 연구법으로 인식되는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 일반대학원 아동가족 유사학과에서도 질적연구방법론을 개설한 곳은 소수였다.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들 연구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이에 대학원 학위과정에 질적연구방법론을 개설하는 것은 “양질”의 질적연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연구의 수준은 방법론을 어떻게 학습했느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들이 질적연구를 직접 실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지는 않을지라도 질적 논문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교과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다루어야 할 핵심주제를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방법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질적연구의 일반적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습하는 것이다. 셋째, 차별적 전통을 지닌 구체적인 질적연구방법을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넷째, 최근 질적연구방법에서 대두되는 쟁점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끝으로, 소규모 질적연구를 실행해보으로써 경험을 통한 자기반성적 지식창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내용들을 구체적인 강의계획서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지닌다. 첫째,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가르칠 계획이 있는 교수자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강의내용을 자신의 수업과 비교해 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보여줌으로써 질적연구를 계획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끝으로,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을 개발하여 강의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언급해야 할 점이 있다.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 과목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주제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된 교과목 강의계획안이 교범(manual)으로 간주되어 학생들이 “혼련”받아야 하는 고정된 내용으로 여겨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의 내용대로 실제 질적연구도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박증을 유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질적연구의 근본이 되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고려할 때 질적방법론은 다양성을 존중하

며 실제 연구과정도 연구자 개인의 창의성, 경험, 윤리성에 의존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희연(2006). 통합학급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7(6), 123-148.
- 교육인적자원부학과정보서비스. http://cesi.kedi.re.kr/serv/P_AS_LS_XX_0001.jsp.
- 김병성(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김진숙(2006).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소속감 갈등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아동연구**, 15(4), 127-140.
- 김혜선(2005). 첫 아버지됨의 체험. **아동학회지**, 26(5), 73-87.
- 남현숙(1992). 한국 유아원 아동 어머니의 놀이와 일의 개념: 질적인 접근. **아동학회지**, 13(2), 229-240.
- 서수경(2001). 가족학 연구를 위한 이론적 대안으로서의 비판이론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1-21.
- 성태제(199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심현애, 이소희(1997). 유아컴퓨터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교사의 욕구 탐색: 질적 접근. **아동학회지**, 18(1), 177-198.
- 양성은(2006). 가족의 일상생활 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4(8), 1-9.
- 유혜령(1997). 질적 아동연구를 위한 해석학의 방법론적 시사. **아동학회지**, 18(2), 57-71.
- 이경순, 최석란(2004). 유아들의 쌓기 놀이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5(5), 95-110.
- 이기숙(1998). 가족주술사 연구법에 관한 소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109-126.
- 이용숙, 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이주옥(1994).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연구: 갈등의 유형, 해석, 그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1994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강연 논문발표**, 46-49.
- 정현숙(1999). 가족학의 기본교과목 및 ‘가족관계’ 강의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3-37.
- 천혜정(2004).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적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61-173.
- 천희영(1997).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질적연구. **아동학회지**, 18(2), 191-211.
- 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Blumenreich, M.(2004). Avoiding the pitfalls of “conventional” narrative research: Using poststructural theory to guide the creation of narratives of children with HIV. *Qualitative Research*, 4(1), 77-90.
- Creswell, J. W.(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Denzin, N. K., & Lincoln, Y. S.(Eds.).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Fielding, N.(2005). The resurgence, legiti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qualitative methods [23 paragraphs].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 /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On-line Journal], 6(2), Art. 32. Available at: <http://www.qualitative-research.net/fqs-texte/2-05/05-2-32-e.htm>.
- Guell, C.(2007). Painful childhood: Children living with juvenile arthrit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7(7), 884-892.
- Habermas, J.(1972).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London, UK: Heinema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Qualitative Methodology. <http://www.uofa.web.ualberta.ca/iiqm/>.
- Jordan, A. B.(2006). Make yourself at home: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search roles in family studies. *Qualitative Research*, 6(2), 169-185.
- Maxwell, J. A.(2005).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McMurray, P.(1998). Gender behaviors in an early childhood classroom through an ethnographic lens.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1(2), 271-290.
- Morgan, D. L.(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2nd.). Thousand Oaks, CA: Sage.
- Onwuegbuzie, A. J.(2000). On becoming a bi-researcher: The importance of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Educational Research(AAER), Ponte Vedra, Florida.
- Owens, E., & Ring, G.(2007). Difficult children and difficult parents: Constructions by child care providers. *Journal of Family Issues*, 29(6), 827-850.
- Padgett, D. K.(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Patton, M. Q.(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2007). Ethical standards for research with children. <http://www.srcd.org/ethicalstandards.html>.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Tashakkori, A., & Teddli, C.(2003). Issues and dilemmas in teaching research methods courses in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A U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6(1), 61-77.
- Weitzman, E. A.(2000). Software and qualitative research. In Denzin, N. & Lincoln, Y. S.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pp.803-820). Thousand Oaks, CA: Sage.
- Ziller, R. C.(1990). *Photographing the self*. Newbury Park, CA: Sage.

접 수 일 : 2008년 6월 11일

심사시작일 : 2008년 7월 4일

게재확정일 : 2008년 8월 17일